

##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에 관한 연구

정희경<sup>†</sup> · 이명희\*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연수연구원<sup>†</sup>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 A Study of Gather in Modern Fashion

Hee-Kyeong Jung<sup>†</sup> · Myung-Hee Lee\*  
Researcher, Dept. of Division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sup>†</sup>  
Associate Prof., Dept. of Division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4. 7. 16. 접수; 10. 21.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ather as decoration techniques of clothes. In this study, we defined 21st century as the modern fashion. And analyzed design that applied gather concerned with Milan, New York, London, Paris, Tokyo Woman's Collections. Data were used from Fashion News and Gap Press Magazine (2001-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ather was the most original techniques among decoration techniques of clothes and formed three-dimensional space.
2. There were many kinds of gather such as cluster gather, all gather, shirring, smoking, frill, flounce, ruffle. and it gave a different impression with Fabrics, cutting method, sewing method, parts that were used.
3. Gather had practical functions providing enough space in activity and was presented as new shape by three-dimension body motion when it was put on.
4. After analyzing design that applied gather showed in collections, there were various appearance according to designer's sensitivity.

**Key Words:** decoration techniques(장식기법), modern fashion(현대패션), kind of gather(개더의 종류), analysis of techniques(기법분석)

#### I. 서론

복식은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인간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신체장식을 위해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식을 고안해 냈으며, 시대마다 유행했던 의복에는 당시의 미의식과 의복구성기술을 반영한 독특한 장식이 나타난다.

의복의 미적요소를 표현하는데 있어 장식기법은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며, 가장자리 선과 각종 디테일(Detail) 과 트리밍(Trimming)등이 이에 해당된다.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ee-Kyeong Jung  
Tel. +82-11-216-0728, Fax. +82-51-623-6029  
E-mail : qmlrud2004@hotmail.com

디테일이란 옷을 만드는 봉제 과정에서 그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된 세부장식을 말하며, 디테일의 종류에는 프릴, 플라운스 등의 주름의 종류와 탭(Tab), 루우프(Loop), 프린징(Fringing), 기계수(Machine embroidery) 등이 이에 속한다.<sup>1)</sup>

복식에 나타난 장식을 살펴보면 켈팅, 패치워크, 자수, 펠팅, 주름잡기, 염색 등 여러 종류의 장식기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장식은 고대부터 남녀 복식을 불문하고 시대별로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재발생하며 현대에 이르고 있다.

주름은 고대로부터 시작된 자연적인 주름으로부터 현대에 새롭게 조명된 인위적인 주름에 이르기 까지 그 표현양상이 다양하고, 디자인에 있어서 미적인 조형감을 지니고 있으며,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갖춘 구조적 특성으로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sup>2)</sup> 이러한 개더의 기법을 활용하여 의상 창작에 적용하기 위하여 21세기 패션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으로 응용되는 개더의 기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종희(1985)<sup>3)</sup>는 복식심리에 착안하여 표면장식의 한 수단으로서 서양의복에 나타난 주름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유경(1994)<sup>4)</sup>은 복식의 장식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장식주름을 연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의상을 제작하였다. 신윤미(1997)<sup>5)</sup>의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주름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주름으로 분류하여 주름의 종류, 사용, 조형성을 중심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숙녀(1998)<sup>6)</sup>의 연구에서는 고대 드레이퍼리 복식과 1990년도 후반기 파리 오프꾸뛰르 컬렉션의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였으나 개더의 다양한 기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의상 장식 주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복식사나 창작 의상제작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디자이너의 의상을 고찰대상으로 하였으나 21세기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개더가 응용된 의상의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패션 컬렉션에서 다양한 디테일로 등장한 개더의 기법을 고찰하는 것은 의상 제작 방식과 기법 응용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패션의 현재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더의 기법이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응용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의상 창작 시 개더의 기법을 활용하고, 새로운 장식기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식기법 중 그 활용 형태가 다양한 개더에 관해서 알아보고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을 고찰하여, 현대 패션에 적용된 개더의 다양한 기법을 파악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개더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형태로 응용이 되어 나타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상 장식 기법 중 특히 개더에 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서적과 논문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의상 장식에 사용되었던 개더의 개념 및 종류, 기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21세기 패션을 현대 패션으로 정의하여 밀라노(Milan), 뉴욕(New York), 런던(London), 파리(Paris), 도쿄(Tokyo) 여성복 컬렉션(Woman's Collection)을 중심으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이너의 작품을 조사하여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더의 기법을 고찰하였다.

사진 자료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발행된 Fashion News지와 Gap Press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컬렉션의 작품 중 개더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작품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 III. 장식기법으로서의 개더

### 1. 개더의 개념

의상 장식기법 중 개더는 다트(dart)의 발견 전부터 사용되어진 의복 조형의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서, 흠질 또는 재봉밖음질 후 실을 잡아당겨 천에 주름을 잡아 입체적 조형성을 부여하는 봉제기

법을 말한다<sup>7)</sup>. 아동복, 부인복 등의 손목, 발목, 목둘레 등 둥글어진 부분, 관절부 등의 부위 또는 요크나 절개선등에 자주 이용되며, 스커트에 개더가 있는 것은 개더스커트라고 부르며, 소매산에 개더가 있는 경우는 개더 슬리브라고 부른다.

기능성과 함께 장식적, 미적효과를 지님으로써, 부드러움과 화려한 느낌의 표현으로 의복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조형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개더의 분량은 그 사용부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더는 직선적인 흐름과 주름의 깊이에 의해 음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의복을 인체에 맞게 하기 위한 재단법의 기초가 만들어지면서 개더는 인공적으로 조형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허리선, 요크, 소매, 칼라, 헴라인 등의 요소요소에 장식적 기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술의 진보도 보여지며, 다른 장식 기법과 혼합되는 등 복합적인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 2. 개더의 종류

봉제 기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는 개더에 대하여 의복구성학 관련 문헌과 서적들(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라사라고육개발원, 1995; 신윤미, 1997)<sup>9)10)11)</sup>을 참고로 하여 개더의 종류를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개더의 종류는 <표1>과 같다.

Cluster gather는 무리, 밀집 등의 의미로서 부분적으로 집중해 있는 개더를 말하며, All Gather는 Cluster에 반하여 전체에 개더를 한 것이다. Shirring은 평행된 세줄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줄을 재봉틀로 박아 밀실을 잡아당겨 개더를 잡은 것을 말하는데, 중세 유럽 농촌 생활 의상으로서 스커트나 블라우스에 이용되어 오다 장식적인 것으로 발달하

였다. 블라우스의 가슴장식이나 수영복, 원피스 허리부분 등에 많이 쓰이는 디테일로서, 얇은 천으로 된 옷의 부분에 적용되는 복식기법의 일종이며, 개더의 부피 때문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경향이 있다. 바늘땀의 방향이나 그에 수직인 개더에 의한 접힘선 방향 중 어느 한쪽이 강조될 수 있다. 니들 워크(Niddle work)에 의해서 형성되는 스모킹은 원래 유럽의 농민 복인 스복(smock)에서 유래되었다. 천에 규칙적으로 스티치 하여 다이아몬드 등의 무늬가 나타나게 한 것으로 천에 정확하게 주름 산을 세워놓은 다음 수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이사이의 공간은 입체적인 볼륨감을 가지며, 복잡한 울동의 원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체적인 부피감, 입체미를 형성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Frill은 16세기 이후 사용된 용어이며, 폭이 좁은 천의 한 쪽쪽에 개더를 잡은 것으로, 의복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러플(ruffle)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폭이 비교적 좁고 가는 것을 프릴이라고 부른다. 화려하게 하기 위해 두 단 내지 세 단을 반복해서 붙일 수도 있으며, 주로 부인복, 아동복의 깃, 소매 끝, 치마단 등의 장식에 이용된다. Flounce는 천을 원형 또는 바이어스로 잘라 박아서 드레스의 스커트 단에나 블라우스 깃과 소매 끝 둘레에 달아 너풀거리는 효과를 낸 것이며, 16세기 말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프릴과 비슷하지만 폭이 약간 넓어진 것을 말하며, 의복의 헴라인에 부착되어 넓이를 늘리거나 운동감을 창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패션 관련 문헌에서 플라운스를 찾아보면, 완성선에 개더링을 한다고 명시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보아 개더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Ruffle은 천의 한편에 개더를 잡아 다른 편의 끝이 너풀거리게 하는 것으로 프릴보다 폭이 넓고 개더나 플리츠도 커

<표1> 개더의 종류

종 류	내 용
Cluster gather	부분적으로 개더를 집중 시킨 것
All gather	의상 전체에 개더를 잡은 것
Shirring	평행된 여러 줄을 재봉틀로 박아 밀실을 잡아당겨 개더를 잡은 것
Smoking	천에 규칙적으로 스티치 하여 다이아몬드 등의 무늬가 나타나게 한 것
Frill	폭이 좁은 천의 한쪽 편에 개더를 잡은 것
Flounce	천을 원형 또는 바이어스로 잘라 주름을 잡아 박은 것
Ruffle	식서 또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폭이 넓은 직물에 개더를 잡은 것

서 큼직한 감을 준다. 가장자리 또는 앞 장식으로서 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의 깃 둘레, 앞슴, 수구, 끝단 등에 붙여진다. 18세기 초부터 손목, 앞가슴, 목 등의 장식용으로서 널리 이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레이스나 린넨의 리플은 소매끝 장식이나 셔츠의 앞 장식으로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자의 의복을 장식하였다.

### 3. 개더의 기능

복식은 생활을 위한 조형 활동이므로 기능이 요구된다. 복식의 기능에는 구체적으로 생체적 기능과 개성적 기능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생체적 기능에는 기후에 대한 방호성과 동작에 대한 적응성이 포함되고, 개성적 기능에는 사회에 대한 장식성으로 미적기능이 강조된다.

개더의 실용적 기능성은 옷감의 넓은 폭을 줄여 활동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개더를 한 부분은 함기량이 높아 보온성도 있다. 또한, 의복제작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접은 주름의 깊이는 숨겨진 여유분으로 신체의 동작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

개더의 장식적 기능성은 부드럽음과 화려한 느낌의 표현으로서 주름의 폭 방향 모양과 선의 두께 방향 모양으로 인한 시각 효과에 의해 장식적 효과를 내며,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아름다움을 준다. 실용과 장식 중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될 수도 있으나, 장식적인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개더는 인체 위에 입혀졌을 때의 형태미와 인체가 움직였을 때의 동적인 선과 내적인 미를 종합한 복합적인 조형미를 갖고 있다. 직선, 방사선, 곡선, 파상선으로 도출되는 개더는 각기 다른 느낌과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신체위에 입혀짐으로써 평면상에서 단조로운 반복이 3차원적인 신체의 운동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sup>12)</sup>. 개더의 형태미는 길이와 너비 외에도 물리적인 깊이가 추가된 공간인 3차원적인 형태의 부피감을 나타내며 또한 빛과 그림자에 따른 깊이를 주며 이들은 동작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리드미컬한 운동미를 포함한 새로운 구조적 조형미를 연출한다.<sup>13)</sup>

##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기법 중 개더는 완성된 하나의 조형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복식 안에서 개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복 경향은 패션이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1920년대의 우아하고 로맨틱한 여성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4)</sup>

개더의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미지들에 의해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며, 개더의 다각적인 표현 기법과 구조적인 특성을 응용하여 여러 디자이너들은 발상의 제약 없이 다양한 디자인들을 개발하고, 예술과 기능의 일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개더를 다양하게 응용함으로써 디자인 발상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되었는데, 현대 컬렉션에 있어서도 개더를 응용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개성을 살리고, 의복의 다양한 울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밀라노(Milan), 뉴욕(New York), 런던(London), 파리(Paris), 도쿄(Tokyo)의 세계 5대 여성복 컬렉션에 등장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클러스터 개더(Cluster Gather)

2001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Hanae Mori는 <그림1>과 같이 수트의 상의 앞여밈 부분에 개더를 사용하였다. 넥크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드레이프를 앞 여밈부분에서 개더로 처리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다음해인 2002년 S/S 파리 컬렉션에서는 시폰 소재의 드레스의 옆 허리선에 클러스터 개더를 사용하여 앞가슴 부분에서 흘러내린 천과 힙선을 따라 올라온 천이 맞물리도록 디자인하여 시선집중의 효과를 노렸다<그림2>. 2004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Lanvin은 넥크라인이 깊게 패인 그런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허리선에서 개더를 사용하여 다트의 사용 없이 드레스의 여유분을 잡아주어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 내었다<그림3>.

### 2. 올 개더(All g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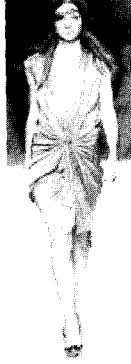
2001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Yves Saint Laurent



**<그림1> Hanae Mori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2> Hanae Mori 2002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3> Lanvin 2004 S/S Paris collection**

은 푸른 바이올렛 타프타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바스트 바로 아래 라인과 힙라인, 무릎라인 전체에 개더를 사용하여 볼륨감있고 풍성한 느낌을 주었다<그림4>. 2003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Jeal Paul Gaultier는 레이스와 톨소재를 사용하여 배중심에서 시작, 드레스 전체에 개더를 주었다. 이때 개더가 형성된 각 층을 분리시켜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그림5>. 2004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Sopha Kokosalaki는 상의와 하의에 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개더를 잡아 생기는 여러 가지 선들에 의해, 심플한 디자인에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그림6>.

### 3. 셔링(Shirring)

2001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Hanae Mori는 화이트 톨소재의 원피스의 옆 허리선에서 시작하여 원형으로 여러줄의 개더를 잡아 가슴선과 햄라인에서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7>. 또한, <그림8>과 같이 시폰 드레스의 앞 배부분에 여러줄의 개더를 잡아 평행의 미와 함께 작은 지역에 걸쳐 복잡한 울동을 나타내었다. 2002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Valentino는 시폰소재의 드레스에 자수와 함께 가슴부터 햄라인까지 여러줄의 개더를 잡아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9>.



**<그림7> Hanae Mori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8> Hanae Mori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9> Valentino 2002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4> Yves Saint Laurent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5> Jeal Paul Gaultier 2003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6> Sopha Kokosalaki 2004 S/S Paris collection**

### 4. 스모킹(Smoking)

2003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Jeal Paul Gaultier는 각 모티브의 중심에서 개더를 모아 크고 작은 원을 연결하여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형성하면서 섹시함을 연출하였다<그림10>. 2004년 S/S 밀라노 컬렉션에서 Alberta Ferretti는 실크 원피스에 불규칙적으로 개더를 잡아 리듬감을 형성하였다<그림11>. 2004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John Galiano는 부분부분 개더를 잡아 둥근 곡선을 그리도록 디자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겹고 경쾌한 느낌을 제공하였다<그림12>.



〈그림10〉 Jeal Paul Gaultier 2003 F/W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11〉 Alberta Ferretti 2004 S/S Milan collection



〈그림12〉 John Galiano 2004 F/W Paris collection

## 5. 프릴(Frill)

2001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Cristian Lacroix는 비대칭 헴라인의 화이트 드레스에 사선방향으로 촘촘히 프릴을 달아 반복에 의한 생동감을 연출하였다<그림13>. 2002년 S/S 런던 컬렉션에서 Blaak은 실크, 면, 툴과 같은 서로다른 소재를 매치시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프릴의 크기를 변화시켜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그림14>. 2004년 F/W 도쿄 컬렉션에서 Toga는 레드 드레스의 웨이스트 라인에 프릴을 여러 겹 달아 시선을 집중시키며 귀여운 이미지를 주었다<그림15>.



〈그림13〉 Cristian Lacroix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14〉 Blaak 2002 S/S London collection



〈그림15〉 Toga 2004 F/W Toko collection

## 6. 플라운스(Flounce)

2001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Valentino는 시폰 블라우스의 넥크라인과 소매 끝에 플라운스를 달아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외관상 및 실제상의 움직임을 제공하였다<그림16>. 2004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Cristian Dior은 상의는 핏하게 디자인하고 하의는 핏한 스커트의 힙 라인 아래를 플라운스로 처리하여 율동미를 극도로 과장하였으며, 요동적이고 생동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그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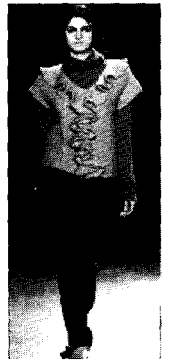
2004년 F/W 뉴욕 컬렉션에서 Tse는 니트 상의의 넥크라인과 앞중심을 플라운스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평범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그림18>.



〈그림16〉 Valentino 2001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17〉 Cristian Dior 2004 F/W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그림18〉 Tse 2004 F/W New York collection

## 7. 러플(Ruffle)

2002년 F/W 도쿄 컬렉션에서 Junko Koshino는 블랙 스커트를 러플로 처리하고 러플의 사이 사이에 깃털을 보이게 하여 신체의 동적 운동에 따라 새로운 파상선이 표출되어 복식조형의 이중 효과를 노렸다<그림19>. 2004년 S/S 뉴욕 컬렉션에서 Jill Stuart는 스커트부분에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나도록 러플을 층층이 달고 끝 라인을 금실로 장식하여 부피감과 율동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20>. 2004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Chanel은 중세의 러프칼라를 응용하여 화이트 블라우스의 넥

크라인과 소매부분을 장식했는데 우아하면서 풍성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였다<그림21>.



<그림19> Junko Koshino 2002 F/W Toko collection



<그림20> Jill Stuart 2004 S/S New York collection



<그림21> Chanel 2004 F/W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

### 8. 현대패션에 나타난 개더 기법의 활용

현대 컬렉션에서 보이는 개더의 활용을 살펴보면, 의상의 앞여밈 부분, 옆 허리선, 가슴선과 힙선, 무릎선, 배중심 등 그 사용부위가 다양하였으며, 의상 전체에 원형 혹은 사선으로 개더를 사용하거나 상의와 하의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불규칙한 개더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더봉제기법과 함께 서로 다른 소재를 매치하거나, 중세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개더의 장식 효과를 높인 작품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은 먼저 개더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반면, 볼륨감 있고 풍성한 느낌을 주거나 섹시하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개더가 주는 효과를 통해,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거나 시선집중의 효과를 노리기도 하고, 다트의 사용 없이 드레스의 여유분을 잡아주어 인체의 곡선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신체의 동적 운동에 따라 새로운 파상선이 표출되어 복잡한 울동과 반복에 의한 요동적이고 생동적인 느낌을 연출하였으며, 리듬감을 형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고 경쾌한 느낌을 제공하였다.

## V. 결론

복식은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인간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상 장식 기법 중 특히 개더는 봉제 기법에 의해 생기는 주름으로서 기능성과 함께 울동감 등의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복식의 미적요소를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장식기법 중 개더는 완성된 하나의 조형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복식 안에서 개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상 장식기법으로서의 개더에 관해 살펴보고, 21세기 패션을 현대 패션으로 정의하여 밀라노(Milan), 뉴욕(New York), 런던(London), 파리(Paris), 도쿄(Tokyo) 여성복 컬렉션(Woman's Collection)을 중심으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이너의 작품을 조사하여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더의 기법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더는 가장 원시적인 테크닉으로 평면이었던 직물에 3차원적인 입체공간을 형성한다. 개더의 독특한 조형성 때문에 복식의 각 부분에서 전체적인 외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복식구성의 기본요소와 장식적인 기법이 되고 있다.

둘째, 개더의 종류로는 클러스터 개더(cluster gather), 올 개더(all gather), 셔링(shirring), 스모킹(smoking), 프릴(frill), 플라운스(flounce), 러플(ruffle) 등이 있으며 소재, 재단방법, 봉제방법, 사용부위에 따라 조화와 강조, 볼륨감과 울동미, 로맨틱시즘과 에로티시즘 등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셋째, 개더는 다트(Dart)의 역할을 대신하며, 신체의 활동량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신체위에 입혀짐으로써 3차원적인 신체의 운동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넷째, 세계 5대 여성복 컬렉션에 등장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을 고찰한 결과, 표현되어진 디자인

마다 개더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법으로 복식의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유하면서 장식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복식의 구조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응용되어 의상 장식의 중요한 디테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개더는 의상의 기능과 장식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컬렉션에서는 의상 장식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의상의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창조적이며 독창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의상 창작시 아이디어 발상의 도구로서 개더의 기법을 활용하고, 3차원적 형태미를 구성하며, 개성적이며 주체적인미를 표현하고, 의복 장식에 있어서 새로운 제작 기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유송옥 (1987). 복식의장학. 수학사, p.66.
- 2) 신윤미 (1997).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종희 (1985). 서양의복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유경 (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폴리츠와 리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신윤미 (1997). Op. cit.
- 6) 강숙녀 (1998). 최근 오픈꾸뛰르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1(3), pp.26-33.
- 7) 이명희, 정희경 (2004). 개더조건에 따른 개더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pp.776-783.
- 8) 강숙녀 (1998). Op. cit.
- 9)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FASHION-*DICTIONARY*. 교문사.
- 10) 라사라교육개발원 (1995). 복식 대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 11) 신윤미 (1997). Op. cit.
- 12) 신윤미 (1997). Op. cit.
- 13) 강숙녀 (1998). Op. cit.
- 14) 주간한국. 2004-02-26 로맨틱룩 “봄, 향긋한 색을 입자”.